

電氣工業振興法의 早速한 制定을 促求함

韓 萬 春*

우리 나라에서 至上課題인 經濟開發, 特히 重化學工業育成에 있어서 電氣工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큰 것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電氣工業은 電源開發과 產業發展에 必要한 電氣機器 등 重電機工業은 勿論 電線, 케이블, 計裝制御機器, 家庭用電機器 및 照明器具등 그範圍가 넓고 先進國에서도 屈指한 大企業이 電氣工業을 바탕으로 크게 成長하여 왔다.

80年代에 國民所得 1,000弗, 輸出 100億弗을 目標로 하는 우리나라는 產業의 原動力인 電力需要의 繼續의 增加에 對應하기 위해서 1986年에 1645萬KW의 發電設備容量을 갖도록 하는 長期計劃이樹立되어 電源開發이 推進되고 있는데 이에 隨伴되는 莫大한 電氣機器를 供給하고 나아가서는 輸出을 伸張하기 위해서 電氣工業의 劃期의 發展을 強力히 企圖되어야 할段階에 왔다고 하겠다. 특히 電氣工業은 그附加價值가 크고 技術集約의 以어서 政府方針과 같이 國產化方案이 強力히 推進된다면 今後 우리나라에서 크게 發展할 수 있는 業種이라고 하겠다.

그間 政府는 重化學工業育成施策에서 重化學工業에 機械工業과 電子工業만을 包含시키고 각각 機械工業振興法과 電子工業振興法을 制定하여 制度的, 財政的으

*正會員·延世大 教授(工博)·當學會 會長

〈p.4에서 계속〉

接交流를 活潑히 하여 電氣產業界에 제신 電氣技術人의 積極의 投稿가 切實하게 要望되는 것입니다.

얼마前의 編修委員會에서는 Journal面을 補強하기 위하여 最近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는 여러 電氣技術分野에 대한 綜合의 特集編輯이 論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즉 現代에 있어서 모든 裝置나 system에서 높은 信賴性(Reliability)이 要求되고 있으므로 信賴度工學特集을 編輯할 것과, 그리고 各種產業分野(發電所, 電力系統, 鐵鋼工業, 大型船舶, 電鐵 등등)에 있어서의 計算機制御의 現況과 動向, 電氣工學은 많은 工學中에서 에너지 變換을 거의 專門의 으로 取扱하는 分野이므로直接 에너지 變換을 위시한 各種 에너지 變換의 原理와 技術, semiconductor를 비롯한 deviccs등의 여러

로莫大한 支援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機械工業과 電子工業은 크게 發展해서 生產과 輸出이 增加하였다. 이 樣 與件에서 電氣工業은 除外되고 電氣機器工業만이 機械工業의 한 分野로 取扱되어 一般機械工業과 다른 特殊性이 無視되고 그 發展이 阻害되어 왔다. 工學의 으로 보더라도 機械工學과 電氣工學이 區分되는 것과 같이 機械工業과 電氣工業은 嚴然히 區分되는 것인데 電氣工業이 機械工業의 一分野로만 取扱되는 것은 言語道斷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電氣工業의 한 分野인 電氣機器工業만 하드라도 全機械工業에 대해서 輸出이 65%, 生產이 35% 以上을 차지하며前述한 電線, 케이블, 家庭用電氣機器, 照明器具 등 모든 電氣工業의 生產을 合치면 거의 機械工業生產과 거의 伯仲할 電氣工業은 先進國에서와 같이 名實共存 獨立된 工業分野로서 다루워지고 機械工業振興法, 電子工業振興法에 比肩할 수 있는 電氣工業振興法이 早速히 制定되어 電氣工業에도 機械工業, 電子工業과 같은 強力한 支援施策이 이루워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므로서 電氣工業이 機械工業·電子工業과 더불어 戰略產業으로서 發展하여 電源開發과 產業發展이 効率의 으로 達成되고 國民所得向上과 輸出振興이라는 至上目標에 크게 寄與할 것을 밀어마지 않는다.

特集을 會誌에 揭載하자는 데 意見을 모은 바 있습니다만 이와 한 特集 編輯은 特히 該當分野를 專攻하시는 學界나 產業界 專門人의 活潑한 投稿欲이 있는 不可能한 것입니다.

恁으로, 近來에 와서 電氣工學의 범위는 더욱 더 擴張되어 앞으로의 電氣工學은 從來와 같은 古典의 인 意味에서의 좁은 分野의 電氣工學이 아니고 材料科學, 에너지 工學, 情報工學 등을 包含한 綜合工學으로서 모든 產業分野에 重要한 寄與를 하는 學問이며 새로운 電氣技術의 開發에 있어서는 電氣工學은 勿論이고 機械, 物理, 化學, 材料 등의 知識과 더 나아가 system工學의 인 見識을 가져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면서 學會誌 編輯에 있어서 會員諸位의 積極의 協助와 參與를 거듭期待하여 마지 않습니다.